

아쿠타가와(芥川)의 여성들 - 생애와 작가활동을 중심으로 -

감영희*
kamyol110@tu.ac.kr

<目次>

1. 서론	
2. 5인의 여성	3.3 요시다 야요이(吉田弥生)
3. 아쿠타가와와 여인들	3.4 4번째 여인
3.1 최초의 여성	3.5 스카모토 후미
3.2 요시무라 치요	4. 결론

주제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AKUTAGAWA), 생애(Life), 작품(literary), 여성(women), 작품의 영향(The influence of the work)

1. 서론

아쿠타가와와 주변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와 생전 친밀한 관계였던 우노 코지(宇野浩二)¹⁾, 에구치 칸(江口渙)²⁾, 오아나 류이치(小穴隆一)³⁾, 구즈마키 토시요시(葛巻義敏)⁴⁾, 구메 마사오(久米正雅)⁵⁾, 고지마 마사지로(小島政二郎)⁶⁾, 다키이 코사쿠(滝井孝作)⁷⁾, 히로쓰 카즈오(広

* 동명대학교 학부교양대학 교수

- 1) 우노코지(1891~1961) 일본 소설가·작가.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의 심사위원으로, 아쿠타가와 주변 여성들에 대해 고전형과 낭만형으로 분류하였다. (『芥川龍之介』中公文庫 上下、1975)
- 2) 에구치 칸(1887~1975) 일본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로부터 인정 받은 문하생으로, 아쿠타가와와 교류하였고 소세키 장례 시에는 아쿠타가와와 함께 집수를 담당했다.
- 3) 오아나 류이치(1894~1966) 일본 서양화가, 수필가, 하이쿠 시인. 1927년 아쿠타가와가 자녀들에게 “오아나 류이치를 아버지로 생각하라. 따라서 그의 교훈에 따르라(小穴隆一を父と思へ。従つて小穴の教訓に従ふべし)”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자, 이후 아쿠타가와와 유족과 친하게 지내게 된다. 1956년 저서『2장의 그림(二つの絵)』(中央公論社)에서 아쿠타가와가 사생이었다는 설을 발표, 파문을 일으켰다.
- 4) 구즈마키 토시요시(1909~1985) 아쿠타가와와 조카. 아쿠타가와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 자료를 독점하였다.
- 5) 구메 마사오(1891~1952) 아쿠타가와, 기쿠지칸(菊池寛) 등과 제4차「신사조(新思潮)」를 창간. 친구였던 아쿠타가와 자살 후 그의 집필량은 극단적으로 줄고 있다. 아쿠타가와와 그의 사후 단편『어느 바보의 일생』의 원고발표 및 출판을 구메에게 위임하였다.

津和郎⁸⁾ 등에 의해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그 대부분이 여성의 이름을 가명이나 초두문자 혹은 칸 비우기 등을 통해 동일한 여성에 대해서도 각인 각양의 견해를 보여준다.

일례로 「어느 바보의 일생(ある阿保の一生)」에 드러난 여성을 두고서도 전술한 이들의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아쿠타가와를 둘러싼 비교적 명료하게 떠오르는 몇 명의 여성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아쿠타가와와 여성관계를 검토하기에는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쿠타가와와 ‘남녀 관계’가 아닌, 그렇다고 단순하지만은 않은 지인 이상의 관계 정도에서 살펴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물론 ‘관계’라고 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쿠타가와와 부인도 그 한 사람으로서 거론하고자 하며, 또한 향간의 떠도는 소문에 지나지 않았을 여성도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필자의 자료에 따르면 아쿠타가와를 둘러싼 여성은 약 20인 정도에 이른다. 그중에는 전술하였듯이 소문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여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야기 되어진 바를 정리·검토하면 아쿠타가와를 둘러싼 여성들의 윤곽이 비교적 명료하게 부상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검토에서는 아쿠타가와와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까지도 주목하여 기존의 아쿠타가와 주변의 잘 알려진 여성들의 틀을 탈피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데 유의한 뜻을 찾고자 한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아쿠타가와와 여성들을 연대순으로 거론, 그녀들이 아쿠타가와와 생애와 작가 활동에 어떠한 역할과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 간다. 나아가 본 연구는 「아쿠타가와(芥川)의 여성들·생애와 작가활동을 중심으로(1)(2)」의 전개를 통해, 논문으로 분석·정리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첫 번째 검토로써 아쿠타가와와 생애 5번째 여인이라 할, 부인 쓰카모토 후미(塚本 文)까지를 보아 감으로써, 소년시절과 청년기를 거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결혼하는 상대 여성을 만나는 시점까지, 그의 일생과 여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작품 활동 등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검토·고찰한다.

6) 고지마 마사지로(1894~1994) 일본의 소설가, 수필가. 1934년 나오키 상(直木賞)·아쿠타가와 상(芥川賞) 심사위원 역임.

7) 다키이 고사쿠(1894~1984) 소설가. 1919년 시사보도(時事新報) 문예부 기자로서 아쿠타가와를 알게 된다. 1935년 창설된 아쿠타가와 상의 심사위원 역임.

8) 히로쓰 카즈오(1891~1968) 젊은 문학자의 모임 「미토카이(三土會)」에 참가하여 아쿠타가와·기쿠지 칸·구메 마사오 등과 함께 알게 되었다.

2. 5인의 여성

우선 필자의 조사,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의 자살 직후 발견된 유작으로 잡지 『개조(改造)』에 게재된 「어느 바보의 일생(ある阿保の一生)」에는 그의 일생과 창작활동에 영향을 준 관련 여성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유의한 것으로 검토된다. 아쿠타가와가 죽음 직전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남긴 일종의 자전적 글이라는 점과, 모두(冒頭)에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아는 구메 마사오(9)에게 원고를 맡긴다는 글을 통해,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그의 정서적 신뢰를 추론하기에 타당하기 때문이다.

「어느 바보의 일생(ある阿保の一生)」에서의 첫 번째 관련 여성은 히데 시게코(秀しげ子)를 들 수 있다. 시게코의 경우 17「나비(蝶)」, 21「광인의 딸(狂人の娘)」, 25「스토린트 베리이(ストリントベリイ)」, 26「고대(古代)」, 38「복수(復讐)」 등 다수의 단락에 드러나 있다. 둘째, 노노구치 도요코(野々口豊子)이다. 그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쿠타가와가의 해군기관학교 교사 시절 알게 된 가마쿠라(鎌倉)의 요정(料亭) 고마치엔(小町園)의 여주인(女將)이다. 머리가 좋은 총명하고 훌륭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색연(色恋)과는 상관없이 아쿠타가와가 존경했던 여성으로서 노노구치도 가족처럼 함께 지내면서, 자살할 때까지 가깝게 지내며 사귀었다. 아쿠타가와가의 플라토닉 러브의 동경하던 성모 마리아 마돈나와 같은 여성이라 할 수 있다. 18「달(月)」, 23「그녀(彼女)」, 30「비(雨)」 등에 드러난다. 셋째, 다키무라 히로조(滝村平蔵)의 첩은 당시 게이샤 신분으로 27「스파르타식 훈련동(スパルタ式訓練)」에 묘사되고 있다. 넷째, 가타야마 히로코(片山広子)이다. 히로코는 37「고시비토(越し人)」에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 히라마쓰 마스코(平松麻素子)는 다이쇼(大正)·쇼와(昭和)기의 아쿠타가와가의 비서라 할 여인으로, 47「불놀이(火あそび)」, 48「죽음(死)」 등의 단락과 관련되고 있다.

세키구치 야스요시(関口安義氏)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1892-1927)에 대한 평전(이와나미 신서/岩波新書/1995)은 220페이지로 된 서책으로, 역시 아쿠타가와를 둘러싼 대표적인 ‘5명의 여성’이 소개되고 있다.¹⁰⁾

본서에서는 먼저 ① 요시다 야요이(吉田弥生/ 1892.3.14.-1973)를 그의 첫사랑의 여인으로서 거론하고 있다. 아쿠타가와는 결혼을 원했지만 양부모와 고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는 결과적으로 실연의 상대이다. 이후 요시다 야요이는 육군 중위 가네다 미쓰오(金田一光男)와 결혼하

9) 「この原稿を特に君に托するのは君の恐らくは誰よりも僕を知つてゐると思ふからだ」

10) 関口安義氏(1995) 『芥川龍之介についての評伝』岩波新書

며, 전쟁이 끝나고 가네다의 고향 모리오카(盛岡)에서 사망했다. 요시다는 아쿠타가와와 동갑이다. 1892년 태생으로 아쿠타가와와 3월 1일생, 요시다는 3월 14일생으로 2주 차이가 난다. 아쿠타가와와 같은 도쿄도(東京都)의 후카가와(深川)태생으로 도쿄고등여학교(東京高等女学校) 아오야마 여학원(青山女学院) 영문전문과를 졸업했다. 요시다의 아버지는 도쿄(東京)병원(당시 시바구 아타고마치(芝区愛宕町)에 근무했던 회계 담당자로, 아쿠타가와와 친아버지 니하라 토시조(新原敏三)의 회사가 도쿄병원에 우유를 반입하고 있었던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의 교제는 시작되었다. 마지막 이별은 다이쇼(大正)4년(1915) 4월이었다. 아쿠타가와와 동경제대 영문과 재학 중이었다. 양부모와 고모의 반대로 이루지 못한 첫사랑에 대한 아쿠타가와와의 상처와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pp.40-50)

두 번째 ② 쓰카모토 후미(塚本文/1900.7.8.-1968)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아쿠타가와와 아내이다. 결혼은 1918(타이쇼 7)년 2월로 후미는 17살 아쿠타가와와는 25세였다. 해군 기관 학교 교관이었다. 아쿠타가와가 자살했을 때 후미는 27살이었다.

쓰카모토 후미는 아쿠타가와 친구 야마모토 키요시(山本喜譽司)의 조카딸로, 아버지 쓰카모토 겐고로(塚本善五郎)는 해군장교로 러일전쟁에서 전함 ‘하츠세(初瀬)’ 피폭 침몰 당시 전사하였다. 그의 처 스즈(鈴)는 자녀 후미 등을 데리고 친정인 야마모토(山本)가로 돌아왔다. 결혼 전후의 경위 등에 대해 본서(pp.114-130)를 읽으면 자세히 알 수 있다.¹¹⁾

세 번째 ③히데 시게코(秀しげ子/1890.8.20.-19??)이다. 아쿠타가와와는 처음 그녀에게 매료되어 수인(愁人)이라 부를 정도로 미혹되었으나, 나중 ‘미치광이의 딸(狂人の娘)’이라 칭할 정도로 번뇌의 대상이었던 여성이다. 아쿠타가와보다 2살 연상으로, 도쿄시 칸다구 니시키초(東京市神田区錦町)에서 태어나 일본여자대학(日本女子大) 가정과를 졸업하고, 전기기사 히데 분이쓰(秀文逸)와 결혼, 장남을 두고 있었다. 히데 시게코는 일본여대 출신의 시인의 모임 ‘춘소카이(春草会)’ 회원으로 노래를 읊고 극평(劇評)을 쓰고 있었던 작가이다. 다이쇼(大正)6(1917)년 9월 15일, 아쿠타가와와 시게코는 밀회를 시작하였으며 『가키구쓰 일록(餓鬼窟日録)』에 아쿠타가와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9월 15일(음력) : 처음으로 수인과 만나다. 밤이 되어 귀가하다. 심회가 뒤숭숭하여 마지 않다. 스스로 희비를 알지 못한다. (始めて愁人と会す。夜に入つて帰る。心緒乱れて止まず。自ら悲喜を知らざるなり。)”

“9월 16일(음력. 비) : 종일 우울함.(終日鬱々)”

11) 그 외, 후미에 대한 아쿠타가와와의 애정은 아쿠타가와가 후미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으며, 1977-1978년 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전집(芥川龍之介全集/岩波書店)」 제10권과 11권에서 서간집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시게코와의 만남은 아쿠타가와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시게코는 다이쇼10(1921)년 둘째 아들을 출산했으며, 그 아이가 아쿠타가와를 닮았다는 풍문을 세간에 흘렸다. 경위는 『어느 바보의 일생』 중 「38. 복수」 편에서 「미치광이의 딸」과의 대화를 통해 밝히고 있다. 아쿠타가와와 표현을 빌리자면 ‘동물적 본능만 강한(動物的本能ばかり強い)’ 여자라고 하였다. 아쿠타가와와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옥죄듯 접근하는 시게코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다이쇼10년(1921) 3월부터 7월까지 상하이와 난징 등 대륙으로 여행을 떠났다. 귀국하여 자신의 서재명을 ‘가키구쓰(我鬼窟)’에서 ‘초코도(澄江堂)’로 변경한다. 여기에서도 시게코에 대한 어두운 기억과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pp.137-148)

네 번째 거론하는 여성은 ④ 가타야마 히로코(片山広子/1878.2.10.-1957)이다. 아쿠타가와에게 「재력 위에도 격투할 수 있는 여자(才力の上にも格闘できる女)」 「고시비토(越し人)」¹²⁾라고 불렀던, 필명 마쓰무라 미네코(松村みね子)는 아쿠타가와와 마지막 연인이라 할 수 있는 14살 연상의 여인이다. 관동(關東)대지진 이듬해 다이쇼13(1924)년, 아쿠타가와와 가루이자와(軽井沢)의 쓰루야 여관(つるや旅館)에 체재하면서 히로코와 만났다. 가타야마 히로코 46세, 아쿠타가와 32세였다. 히로코는 와카(和歌)의 가인으로 아일랜드 문학 번역가였다. 번역 수필을 발표할 때는 필명 마쓰무라 미네코를 사용했다.

아쿠타가와와 ‘시바의 여왕(シバの女王)’에 대해 ‘...미인은 아니었다.’ 라고 하였다. 더구나 나이도 연상이었다. 그러나 보기 드문 재녀였다. 솔로몬은 그녀와의 문답을 통해 그의 마음이 비약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여기서 시바의 여왕은 히로코이며 솔로몬은 아쿠타가와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어느 바보의 일생」의 「37. 고시비토(越し人)」에서는 ‘재력 위에도 격투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났다.’ 하지만 ‘고시비토(越し人)’ 등의 서정시를 지어, 겨우 위기를 벗어났다.(越し人等の抒情詩を作り、僅かにこの危機を脱した。)라고 쓰고 있다. 여기서 위기는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시비토’란 원래는 ‘타카시(高志)호쿠리쿠(北陸)사람’을 의미하지만, 가루이자와에서 만난 히로코를 일컫는 말이다. 연애를 예술로 승화(昇華)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승화는 부정되고 있다. 아쿠타가와와 연애감정의 진의에 대하여 헤아려 볼 부분이다. (pp.173-175)

다섯 번째, ⑤ 히라마쓰 마스코(平松ます子/1898.2.7.-1953)이다. 도쿄도 시바구 시모타카와초(東京市芝区下高輪町)태생으로, 후미와는 소꿉친구이다. 아쿠타가와보다 여섯 살 아래이며

12) ‘越の国の人’라는 뜻으로, 新潟에 사는 히로코(広子)를 의미함. 예를 들면 『越し人』에는 「むらぎものわがこころ知る人の恋しも。み雪ふる越路のひとはわがこころ知る。(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림다. 눈이 내리는 고시국에 사는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지.)(私の心を理解できる人が恋しい。雪の降る越の国に住む人は私の心を知っている)」라는 노래가 있다.

후미보다는 2년 반 연상이었다. 도쿄여학관(東京女學館)을 졸업했다. 부친 히라마쓰 후쿠사부로(平松福三郎)는 변호사로 유라쿠초(有樂町)에 법률사무소 겸 공증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 후쿠사부부가 오모토교(大本教)¹³⁾에 입문, 변호사를 폐업하고 교단의 본거지 교토·카메오카(京都·亀岡)로 이사를 하면서, 히라마쓰 마스코는 집안의 가장 역할로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에 중사하였지만, 후미의 추천으로 히라마쓰는 아쿠타가와와의 집필을 지원하는 비서 역할을 맡게 된다. 언급한 히라마쓰의 부친 후쿠사부로는 제국호텔 지배인 이누마루 데쓰조(犬丸徹三)와 이는 사이였던 관계로, 히라마쓰는 아쿠타가와에게 제국호텔을 소개하였다. 제국호텔(신관)은 다이쇼12년(1923)년 준공되었지만, 후에 실화(失火)로 1919년 전소되었다. 9월 1일 낙성기념 피로연 예정일 날, 피로연 준비를 하던 중 지진 재해를 당하게 되지만 제국호텔은 잘 견뎌내었다. 아쿠타가와는 그 제국호텔의 방 하나를 일터삼아 집필에 전념하였다. 작품 『톱니바퀴(齒車)』에서 그러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하동(河童)』 『톱니바퀴』 등의 대표작은 히라마쓰의 지원으로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할 정도이다.

히라마쓰가 아쿠타가와와 동반자살 약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살 저지자·감시자로서 일관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다.¹⁴⁾ (pp.205-209)

이상, 아쿠타가와를 둘러싼 대표적인 5인의 여성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아쿠타가와와 사상과 가치관,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기술이 있는 본 책은, 아쿠타가와 문학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다.

이하, 이상의 알려진 5인의 여성들을 포함, 연대순에 따라 그의 생을 관통한 여성들을 검토함으로써, 아쿠타가와와 생애와 작가 활동에 여성들이 어떠한 역할과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3. 아쿠타가와와의 여인들

3.1 최초의 여성

쇼와 33년(1958) 「도서(圖書)」2월호에 「아쿠타가와와의 이른바 첫사랑(芥川のいわゆる初恋)」

13) 신도계(神道系) 신종교(新宗教). 정식명칭에는 「교(教)」가 붙지 않음.

14) 아쿠타가와도 「어느 바보의 일생」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이라는 미완성 단편이 구즈마키 요시토시(葛巻義敏)에 의해 발표되었다.¹⁵⁾ 아쿠타가와와 첫 사랑에 대해서는 당시 그다지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이 미완성 단편의 발표는 귀중한 자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편자인 구즈마키는 “이 호의 원고로서 별도로 그의 「MEINE STUDIE」라는 제목의 노트 안에 「VITA SEXUALIS(어렸을 때부터 10세 무렵까지)」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지면 관계상 여기에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この号の原稿として、別に彼の「MEINESTUDIE」と題するノートの裡「VITA SEXUALIS(幼時から十歳頃まで)」を用意してあったが、それは紙数の関係上、ここに発表することは不可能になった)”라고 기술하고 있다.

구즈마키는 그 후 「아쿠타가와를 둘러싼 여성(芥川をめぐる女性)」¹⁶⁾이라는 글에서 「자전적 스케치·어느 바보의 일생(自伝的エスキス·ある阿保の一生)」에 나타나지 않는 여성의 한 사람으로 이 『VITA SEXUALIS』에 나오는 여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연대순으로 말하자면 아쿠타가와와 『VITA SEXUALIS』에 나오는 이 여성이 아쿠타가와와 최초의 여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발표로 끝났다는 점에서 그녀가 어떠한 여성이었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는 점은 아쉽다.

3.2 요시무라 치요(吉村千代)

성적이 우수하였던 아쿠타가와는 1913년 동경제대 영문과에 입학하게 된다. 아쿠타가와는 이때 편지로 “영문과에 가든지, 다른 과에 가든지 그것도 지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英文科へ行かうか外の科へ行かうかそれも今では迷つてゐます)”라고 숙부에게 전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러한 아쿠타가와 의사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문학을 좋아하는 가정에서(文学好きの家庭から)”라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 무렵 아쿠타가와와 생가를 돕기 위해 와 있던 여성, 요시무라 치요에게 연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 앞으로 쓴 연애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난 정말 지금 마음속 깊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잠자코 있을 때도 웃고 있을 때도 내게는 그 누구보다도 예뻐. 평생, 누구보다도 이쁠 거야. 내 자유로 되지 않아도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예뻐한다는 것이 너의 행복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생각하니 걱정이 돼. 내 마음속 깊이 너의 몸이 건강하기를 네가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어. (ぼくはほんとうに今では心のそこからお

15) 葛巻義敏編(1968) 『芥川龍之介未定稿短篇』岩波書店

16) (1958) 『近代文學鑑賞講座 第11卷 芥川龍之介』角川書店、6月刊

前を愛してゐる。お前はだまってゐるときも、わらつてゐるときも、ぼくにとつてはだれよりもかはゆいだ。一生、だれよりもかはゆいだ。ぼくのじゆうにならなくともかはゆいだ。さうして、ぼくがお前をかわゆがると云ふ事が、お前のしあはせのじやまになりはしないかと思つて心ばいしてゐるのだ。ぼくは心のそこからおまへのからだのじようぶな事とお前がしあはせにくらう事をいのつてゐる。)17)

치요로부터 대답은 확실하지 않지만, 신분의 차이도 있어 아쿠타가와는 격 있는 집안의 자신과 가정부 치요는 맺을 수 없는 운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성취되지 않는 사랑임을 아쿠타가와도 알고 있었던 듯, 연애편지에는 호의는 갖고 있지만 오로지 그녀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내용으로만 가득하다. 이 편지에서 아쿠타가와는 주로 히라가나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치요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쿠타가와와 섬세함과 여성에게 반하는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3.3 요시다 야요이(吉田弥生)

아쿠타가와는 대학에 들어가 구메마사오(久米正雅)나 마쓰오카 유즈루(松岡譲)와의 교제를 통해 그들의 영향으로 창작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다이쇼(大正)3년(1914) 2월 구메, 마쓰오카, 기쿠지 칸(菊池寛)등과 제3차 「신사조(新思潮)」를 창간한 것은, 아쿠타가와와 장래 진로를 결정지었다고 할 중요한 대사건이었다. 이 시기 아쿠타가와 주변에 큰 사건이 생기게 된다. 바로 소위 아쿠타가와와 첫사랑이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쓰네토 쿄(恒藤恭)는

“그에게도 첫사랑이 있었다. 그 아름다움은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는 열십이었다。(かれにも初恋があった。その秀曲は記すまい。そのとき彼は一生懸命であった。)”18)

라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결혼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여정을 밟을 터였다(順調に進んで行けば結婚といふ極めて平凡な道程を辿るはずであった。)”19)는 그의 첫사랑은 파국으로 끝났다.

그의 첫사랑의 상대는 생부였던 니이하라 토시조(新原敏三)가 경영하는 우유 판매업 지점

17) 進士素丸(2019) 『文豪どうかしてる逸話集』角川/https://news.livedoor.com(검색2021.11.5)
https://pdmagazine.jp/people/akutagawa/(검색 2021.11.05)

18) 恒藤恭(1952) 『旧友芥川龍之介』市民文庫版、27頁

19) 富田碎花(1927) 『芥川君を憶ふ』改造、9月

을 운영하던 마쓰무라 센지로(松村浅二郎)의 조카로 ‘오랜 니시키에 한 장(古版の錦絵の一枚)’²⁰⁾에 담긴 여성과 닮은 미모를 하고 있으며, 도미타 사이카(富田碎花)는 당시 ‘임시 거처하던 집 딸의 여학교 친구로 매우 총명한 두뇌의 소유자였다.(寄寓していた家の娘の女学校友たちで、極めて聡明な頭脳の所有者であった)’²¹⁾라고 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구즈마키(葛巻)에 따르면 ‘Y짱(Yちゃん)’²²⁾, 무라마스 쇼후(村松梢風)에 따르면 다이쇼3년 오차노미즈(お茶の水)여학교를 졸업한 유리코(百合子)라는 여성이다.²³⁾ 아쿠타가와와 그녀의 교제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내 마음에는 때때로 사랑이 생겨날 가능성이 없는 꿈 같은 사랑이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랑이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안전한 뭔가가 된다면 현실에서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 첫째, 여성은 너무나 자만심이 강하기 때문이며, 둘째 세상은 너무나 유추를 좋아하기 때문이다.(僕の心には時々恋が生まれるあてのない夢のやうな恋だとかかに僕の思ふ通りな人がいるやうな気のする恋ふあけれども実際的には至って安全である何となれば現実これを求むべく一に女性はあまりに自惚が強いからである二に世間はあまりに類推を好むからである。)’²⁴⁾

라고 쓰고 있다. 이 무렵 이미 연애 대상으로서 그녀가 마음에 있었다는 것은 상상하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 편지로부터 2개월 후인 7월24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아쿠타가와는 지바현(千葉県) 이치노미야(一の宮)에 체재하면서 7월 28일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편지 초고에 “잠들기 전 가끔 도쿄에서의 일과 Y생각이 납니다.(眠る前(こ時々東京の事やYちゃんの事を思ひ出します。)’²⁵⁾라고 하였다. 더구나 11월 30일에는, 쓰네토(恒藤)에게

“요즘 나는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거의 누구와도 만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때로 몹시 쓸쓸하지만 어쩔 수 없다.(この頃僕はだんだん人と遠くなるやうな気がする殆誰にもあはうと云ふ気がおこらない。時々は随分さびしいが仕方がない)”

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다음 해 다이쇼4년(1915) 2월28일 쓰네토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는,

20) 大正4年(1915) 2月18日付、恒藤恭氏宛書簡
 21) 富田碎花(1927) 「芥川君を憶ふ」改造、9月
 22) 葛巻義敏(1958) 「芥川のいわゆる初恋」(圖書 5月刊行)
 23) 村松梢風(1956) 「芥川と菊池」 「芸芸」春秋新社 5月刊行 62頁
 24) 上掲書、62頁
 25) 葛巻義敏(1958) 「芥川のいわゆる初恋」(圖書 5月刊行)

“어떤 여자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 여자가 어떤 남자와 약혼했어. 나는 그제서야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생략) 그 약혼도 대강의 이야기가 운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다. 나는 구혼하려고 했어. 집안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지. 그리고 격렬한 반대를 부딪혔다. 고모가 밤새도록 울었고 나도 밤새도록 울었지. (ある女を昔から知っていた。その女がある男と婚約した。僕はその時になって僕がその女を愛していることを知った。(略)その婚約も極大体の話が運だのに過ぎないことを知った。僕は求婚しようと思った。(略)家のものにその話を持ち出した。そして烈しい反対を受けた。伯母が夜通し泣いた僕も夜通し泣いた)”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편지로 아쿠타가와와의 사랑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쿠타가와와의 첫사랑 야요이와의 결혼이 과국에 이른 경과를 들여다보면, Y에게 아쿠타가와와의 생부와 동향인 야마구치현의 어느 해군 중위와 결혼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다지 진전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 아쿠타가와와는 Y에게 구혼하고자 그녀와 만날 약속을 하는 편지를 보내었다. 하지만 우체국의 실수로 이 편지는 야요이에게 배달되지 않고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여기서 아쿠타가와와는 야요이에게 구혼할 의사를 집안에 이야기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의 양부모는 극구 경계하며 끝내 그분의 집을 방문하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如何なる理由からか彼の養家では極力警戒して果ては先方の家を彼が訪問することさへ喜ばないやう)”²⁶⁾ 라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격한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다.

숙모는 밤을 새워 울었고, 다음 날 아침, 아쿠타가와와는 힘든 얼굴로 단념하겠다고 말한다. 그로부터 유쾌하지 못한 날들이 며칠 지난 후, 아쿠타가와와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만 답장은 없었다.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집안의 한 모임에서 그녀를 만났다.(一週間程たつてある家のある会合の席でその女にあった.)”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 돌아갔고 아쿠타가와와는 “공허한 마음 한 조각을 품고 돌아왔다. (空虚な心の一角を抱いて帰ってきた.)”라고 하였다. 그리고 실의에 찬 그는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읽고 있던 책들도 도중에 그만 두어버린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옛새가 지나 그 집안에 초대받은 답례로 갔다. 그때 여자가 히포콘데릭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불면증으로 두 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다는 것이다.(後、六日たつて前の家へ招かれた御札に行った。その時女がヒポコンデリックになっているといふ事をきいた。不眠症で二時間位しか眠れなかつたと云ふのである。)” 2주일 정도 지나 그녀로부터 “다만 행복하기를 빈다(唯幸福を祈っている)”는 편지가 왔다. 잠시 냉각기간을 둔

26) 도미타 사이카(富田碎花)의「芥川君を憶ふ」에서. 구즈마키 요시토시(葛巻義敏)는 상대 여성이 무사집안이 아닌 것이 아쿠타가와 가문의 강한 반대를 한 이유였다고 한다.

아쿠타가와와는 본래의 평정한 생활로 돌아왔다. 자신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곳에 답장을 쓰기 시작했고,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으며 중단했던 책들도 읽기 시작했다. 27)

두 사람 사이는 아쿠타가와가 보다 열심이었고, 그 후로도 때때로 그녀를 생각했던 것 같다. 다이쇼5년(1916) 수첩(1월26일)에

“해군사관의 이야기를 계속 쓴다. 간헐적으로 오는 Y의 memory에 압도당한다.(海軍士官の話を書き続ける。間欠的にくるYのmemoryに圧倒された)”

라고 적고 있으며, 다이쇼6년(1917) 8월 30일 일기에 따르면, 치통으로 얼음베개를 하고 자면서

“모기장 너머로 밝은 하늘을 보았다. 어쩌면 이 3년 정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머리에 떠올랐다. 어딘가 먼 곳에 가서 아마도 행복하게 살고있을 사람이다.(蚊帳越しに明るい空をみた。さうしたらこの三年ばかり逢ったことのない人の事が頭に浮んだ。どこか遠いところへ行行って恐らくは幸福にくらしている人の事である)”

라고 쓰고 있다. 또 도미다 사이카(富田碎花)에 따르면, 아쿠타가와와는 그녀의 결혼식 전날 당시 나카시부야(中渋谷)에 있던 그의 집에서 그녀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고 하며, 아쿠타가와 자신이 결혼한 후에도 “그 첫사랑을 어떻게 만날 수는 없을까, 라고 부탁받은 적이 있었다. (その初恋の人? に何とかして会わせて貰えぬだろうかとのまれたことがあった。)” 하지만, 그것은 실현되지 못했다고 한다.28)

이 첫사랑의 파국은 결국 그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아쿠타가와와는 이 연애를 통하여 인간의 추악함, 이기심을 알게된다. 아쿠타가와에게 있어서 소중한 소꿉친구와의 사랑은, 신분을 중시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아쿠타가와 가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는 사랑에서조차 인간의 이기심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괴로워했다.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다른 세계로 눈을 돌리고자 했다. 이렇게 집필하기 시작한 것이 『라쇼몬(羅生門)』이며 『코(鼻)』이다. 이 두 작품이 아쿠타가와가가 문단에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첫사랑의 파국이 그에게 끼친 영향과 의의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7) 富田碎花(1927) 「芥川君を憶ふ」『改造』九月

28) 上掲書

3.4 4번째 여인

아쿠타가와를 둘러싼 여성으로 제4의 여인은 『코(鼻)』를 완성한 4일 후, 다이쇼5년(1915) 1월24일 수첩에 기록되고 있는 C라는 여성이다. 구즈마키(葛巻)는 이 C라는 여성도 「어느 바보의 일생」에 드러난 여성 중 한 사람으로서 들고 있다.²⁹⁾ 이 여성에 대한 자료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관계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3.5 쓰카모토 후미(塚本文)

다이쇼5년 7월 대학을 졸업한 아쿠타가와는 취업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작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해 가기도 아직 그 위치가 단단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적을 두기로 하였다. 그 무렵 「신사조」에 발표한 『코(鼻)』가 「신소설」에 게재되는 것을 계기로, 9월 특별호 원고의 집필의뢰를 받게 된다. 아쿠타가와는 본 소설의 제목을 『고구마 죽(芋粥)』이라고 정하고 8월1일부터 집필하기 시작하여 12월에 완성하여, 17일부터 9월2일까지 구메(久米)와 둘이서 지바현(千葉県)의 이치노미야(一の宮)로 떠났다. 이곳은 첫사랑의 여인 요시다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낸 곳이다. 이곳에 체재하면서 8월25일 아쿠타가와는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야마모토 키요시(山本 喜彌司)의 조카로 당시 아토미(跡見)여학교에 재학중이던 쓰카모토 후미(塚本文)에게 청혼의 편지를 보낸다. 후미의 부친 쓰카모토 겐고로(塚本善五郎)는, 러일전쟁 당시 군함 하쓰세(初瀬)의 승무원으로서 참모를 지낸 군인이다. 하지만 메이지(明治)37년(1904)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일찍이도 전사하였다. 겐고로는 당시 36세로 아쿠타가와가 죽음을 맞이한 나이와 같은 연령이었고 당시 후미는 5세에 불과하였다. 후미는 부친이 작고하고 그 다음해 조부와 조모가 연이어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모친이 살고 있던 도쿄 혼조아이오이쵸(本所相生町)로 이전하게 된다. 메이지40년(1907)의 일이다. 후미 모친의 남동생이었던 야마모토 키요시가 이곳에 살면서 아쿠타가와는 자주 놀러가게 되는데, 이때 후미와도 면식을 익히게 된다. 삼촌이라고는 하지만 후미와 그다지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던 키요시를 오라버니라고 부르던 후미는 아쿠타가와가 놀러오면 “오라버니 아쿠타가와 씨가 왔어요(兄さん、芥川さんが来たわよ.)”라고 말하곤 했다. 후미가 아쿠타가와를 알게 된 것은 8세 무렵이었다.³⁰⁾

아쿠타가와가 후미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29) 葛巻義敏(1958) 「芥川をめぐる女性」『近代文学鑑賞講座』第11巻、角川書店

30) 芥川文(1949) 「二十三年ののちに」(図書 12月)

전술한 다이쇼 5년(1916) 8월25일자 서간문에 “후미짱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것을 내가 형에게 말한지 몇 년이 되었지요”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첫사랑이 파국으로 끝난(다이쇼 3년 연말) 이전의 일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이쇼 5년 설날, 아쿠타가와는 쓰카모토 후미가에서 가루타놀이를 했다. 그 무렵, 아쿠타가와 가에서는 류노스케가 후미를 신부로 맞이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아쿠타가와는 “언제라도 농담도 적당히 해라(何時でもいゝお喋りな冗談にして)”라고 했지만, 차츰 후미에 대해서 흥미와 애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런 한편, 아쿠타가와는 후미와 결혼하는 것이 어찌면 불가능하다는 예감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다.³¹⁾ 아쿠타가와는 후미와 결혼하고 싶다는 취지를 집안사람들에게 알린 것 같으며, 그리고 2월에 쓰카모토 집안에 후미를 숙모와 보러갔으며 집안사람 모두는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보인다.³²⁾ 그러나 그 무렵 아직 아쿠타가와 혹은 아쿠타가와가만의 의사일 뿐이고, 야마모토에게 “내가 후미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후미에게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다.-중략-후미짱의 나에게 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僕が文ちゃんを愛しているといふ事を少しでも文ちゃんに知って貰えたらと思った。-中略-文ちゃんの僕に対する心もちが少しでも僕にわかっていたらと思った。)”라고 하여, 동료에게도 서로의 의사를 알려주도록 의뢰하고 있다.³³⁾ 이렇게 후미도 본인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자, 8월 청혼의 뜻이 담긴 편지를 통해 정식으로 혼담이 오간 것은 12월이었다.

양가 사이에 오고간 혼담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고 있다.

“후미코는 지금으로부터 아토미여학교를 통학 수업 중이나 그 졸업을 기하여 황도 길일을 택하여 결남을 교환한 위에 아쿠타가와 집안으로 시집, 결혼식을 거행하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文字ハ目今跡見女学校通学修業中ニ付其卒業ヲ俟チ黄道吉日ヲ選ミ更ニ結納爲取換ノ上芥川家、娶リ結婚式ノ手續舉行可何致)”³⁴⁾

후미는 이때 17세였다. 그리고 아쿠타가와가 해군기관학교에 취업하고 작가로서도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다이쇼7년(1918) 2월2일 결혼식을 올렸다. 아쿠타가와 27세, 후미 19세였다. 현재 전집에는 다이쇼5년(1916) 8월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아쿠타가와가 후미에게 보낸 편지는 18통으로 수록되고 있다. 그 어느 내용도 여동생을 보살피는 오빠와 같은 애정이 녹아있

31) 이러한 추측은 다이쇼5년(1916) 연초 야마모토 키요시에게 보낸 편지문에 의함.

32) 다이쇼5년(1916) 2월15일자 쓰네토 교(恒藤恭)에게 보낸 편지

33) 다이쇼5년(1916) 5월13일자 야마모토 키요시(山本喜譽司)에게 보낸 편지문

34) (1983)『日本文学アルバム芥川竜之介』13의 21항、新潮社

으며 요령 부리지 않고 잘난 척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직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면 된다며, 자신은 지금은 비록 일본에서 가장 돈벌이가 안되는 자로 가난하지만 고생을 함께 하자며, 자신은 후미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두 사람이 즐겨웠던 약혼 기간 중 하나의 사건은 있었다. 그것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장녀 후데코(筆子)를 둘러싼 소세키 문하의 구메 마사오(久米正男)와 마쓰오카 유즈루(松岡譲) 사이에 벌어진 연애사건이 아쿠타가와와 신변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후데코에게 호의를 품고 있었던 구메는 소세키 사후에도 빈번히 나쓰메 기를 출입하며 후데코에게 구애하였고 승낙을 얻자, 미망인 교코(鏡子)여사에게 결혼의 뜻을 알리는 한편 승낙을 얻고자 하였다. 하지만 교코 스스로 혼자서는 결정하기가 어려워 소세키 문하의 선배들이었던 고미야 도요타카(小宮豊隆), 스즈키 미에키치(鈴木三重吉), 모리타 소헤이(森田草平) 등에게 의견을 묻게 된다. 그들은 “구메와 같은 경솔하고 천박한 남자는 안된다. 아쿠타가와라면 괜찮다.(久米のような輕非浮薄な男では遺憾、あくたがわならよい)”라고 함으로써, 아쿠타가와는 후데코의 남편감 사위로서 최고의 후보로 거론되었다. 이에 구메는 교코 미망인으로부터 결혼 납입을 거절당하고 나쓰메가에의 출입마저 금지당하자, 실연의 아픔으로 고향 후쿠시마현(福島県)으로 돌아가 버렸다. 구메는 이 사건을 『파선(破船)』 『화영(和靈)』 등에서 묘사, 그려냄으로써 일약 문단의 총아가 된 것은 아쿠타가와와 경우와 유사하다.

『화영(和靈)』에 그려지고 있는 아쿠타가와(秋山/아키야마), 후데코(冬子/후유코), 후미(房子/후사코)의 관계를 보면, “아키야마의 의중은 이미 당시 후사코씨라는 지금의 아내분에게 있었다.(秋山の意中はもう当時既にふさ子さんという今の細君の方に在った.)”라고 하여 아쿠타가와는 후데코의 남편감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자신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 가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에 누구에게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유일하게 후미의 숙부에 해당하는 야마모토에게는 예전부터 무엇이든 그와는 상담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으므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⁵⁾ 따라서 아마도 후미는 이 일에 대해 야마모토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후미가 이상에서 언급한 나쓰메 집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게 된 아쿠타가와는 후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나쓰메씨 저쪽에서도 이쪽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듯이, 이쪽에서도 저쪽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미씨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쓰메씨를 거절한다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없어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후미짱 이외의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는,

35) 다이쇼6년(1917) 9월 5일자 아쿠타가와 후미에게 보낸 편지

본래부터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생활을 유쾌하게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후미짱뿐입니다. (夏目さんの方は向うでこっちを何とも思っていない如く こっちも向うを何とも思っていない。僕は文ちゃんと約束があったから夏目さんのを断るとか何とか云ふのではありません。約束がなくなっても断るのです。文ちゃん以外の人と幸福に暮らすことが出来ようなどとは、元より夢にも思っていない。僕に力を与へ僕の生活を愉快にする人があるとすれば、それは唯文ちゃんだけです。) 36)

구메가 실연을 했을 때에도 아쿠타가와는 후미에게

구메는 불쌍합니다. 문하생이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XX(후데코)씨도 구메가 싫어져 버렸으니까요 그 정도라면 처음부터 호의를 갖지 않는 편이 나았습니다. 구메는 지금 밥도 먹지 않을 정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久米は可哀さうです。門下生が反対したばかりでなくXX(筆子)さんも久米がきらひ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からね。そのくらいなら始めから好意を持たなかった方がいいのです。久米は今飯も食べないほど悲觀してゐます。) 37) XXXX

라고 구메에게 동정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 또한 아쿠타가와는 결혼날짜에 이르러 그때 구메가 가장 실연의 비탄에 빠져있었던 시기였으므로, 구메에게는 결혼 통지장을 보내지 않고 마쓰오카(松岡)에게만 알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⁸⁾ 피로연은 자택 타바타(田端)³⁹⁾에서 가까운 자소헌(自笑軒(じしょうけん)에서 개최되었다. 결혼식 1주일 전 아쿠타가와는 후미에게 편지를 보내어

36) 다이쇼6년(1917) 9월 5일자 아쿠타가와 후미에게 보낸 편지
 37) 다이쇼6년(1917) 12월12일자, 아쿠타가와 후미에게 보낸 편지
 38) 다이쇼7년(1918) 2월01일자, 마쓰오카 유즈루에게 보낸 편지
 39) 잠시 아쿠타가와와 자택이 있던 타바타에 대해 아쿠타가는 「학교와는 조금 가까워졌다. 게다가 전보다 상당히 한적하다. 단지 높은 곳이라 바람받이가 조금 심하다. 그 대신 저녁에는 2층에 올라가면 안개 속에 고마고메대의 등불이 하나씩 켜지는 것이 보인다. 다만 귀찮은 것은 눈발 정거장에 가는데 꽤 가파른 비탈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야나기마치의 언덕만큼 길게 나타난다. 그냥 귀찮은 것은 눈발의 정거장까지 가는 것이 꽤 가파른 비탈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나막신으로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거기서 비가 올 때는 잠시 학교를 쉬고 싶어지지. 쉬면 노트가 쌓이게 되는 요즘은 그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약해져.(学校へは少し近くなった。その上前より余程閑静だ。唯高い所なので風あてが少しひどい。其代り夕がたは二階へ上ると霧の中に駒込台の燈火が一つづつともるのが見える。ただ厄介なのは田端の停車場へゆくのに可成急な坂がある事だ。それが柳町の坂位長くて路幅があゝの半分位しかないだから雨のふるときは足駄で下りるのは大分難渋だ。そこで雨のふるときには一寸学校がやすみたくなる。やすむとノートがたまる此頃はそれに少しよわってゐる) 라고 할 정도로 추억의 거리였다. 近藤富枝(1987) 「田端文志村」中公文庫

지쇼켄에 가서는 상당히 규정이 까다로운 것 같아, 이에 조금 질려 있습니다。(自笑軒へ行ってからはずいぶん極りが悪そうのでこれには少し閉口しています。)

라고 하였다.⁴⁰⁾

아쿠타가와와 작품에 등장하는 후미는 『아이의 병(子供の病氣)』(『局外』1923년8월), 『사후(死後)』(『改造』1925년9월), 『연말의 하루(年末の一日)』(『新潮』1926년1월), 『신변(身のまはり)』(『サンデー毎日』1926년1월), 『혼조료코쿠(本所両国)』(『東京日日新聞』석간, 1927년5월6일-5월22일), 『신기루(蜃気楼)』(『婦人公論』1927년3월), 『어느 바보의 일생(或阿呆の一生)』(『改造』1927년10월)(『톱니바퀴(齒車)』(『文藝春秋』1927년10월), 『구케누마 잡기(鶴沼雜記)』(遺稿) 등에 등장하고 있다.

후미에 대한 일화로는 자신의 아이들은 모두 남아였지만 매년 3월3일 삼짚날 무렵이면 히나마츠리(雛祭り)인형을 장식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며, 히나마츠리 인형은 친정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쿠타가와가 자살했을 때 후미는 27세였다. 아직 후미에 대한 아쿠타가와와 애정은 실제로 아쿠타가와가 그녀에게 보낸 편지문을 통해 읽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예를 들면 참고한 쇼와(昭和)52년(1977)에서 53년(1978)에 간행된 『芥川龍之介全集』(岩波書店)제10권과 11권이 편지문이다. 또 아쿠타가와가 나중에 아내가 되는 쓰카모토 후미에 대한 연심(恋心)을 기술한 2통의 편지가 도쿄 기타쿠(東京・北区)의 다바타(田端) 문사촌기념관(文士村記念館)에서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본 편지는 결혼 전, 아내 후미의 삼촌이자 당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야마모토 키요시에게 쓴 것으로, 편지 2년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하지만 아쿠타가와와는 9년 후 자살하고 만다. 아쿠타가와가 후미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태워 달라(一緒に燃やしてほしい)’는 후미의 유언에 의해 현재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전술하였듯이 우노코지는 아쿠타가와가 좋아한 여성을 고전형과 낭만형으로 아쿠타가와와 여성들을 분류하였다, 후미의 경우 고전형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아쿠타가와가 결혼 후 9년 만에 자살을 하는 경위에서 후미에의 초연의 사랑이 상당히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를 계기로 후미로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개별적 작품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아가기로 하며, 차기를 기하고자 한다.

40) 다이쇼7년(1918)1월23일자, 아쿠타가와와 후미에게 보낸 편지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아쿠타가와와 부인 쓰카모토 후미(5번째 여인)까지를 살펴보았다. 아쿠타가와와 여인으로 잘 알려진 여성은 전술하였듯이 5명으로 압축되지만, 알려진 5인과 그의 생애와 작품의 경향에 영향을 미친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를 둘러싼 여인들의 자료를 찾아냄으로써 보다 세밀한 검토 작업을 통해 논문(1)(2)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선 논문(1)로 정리하였다. 논문(2)의 과정을 거치면 선행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나름의 독창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논문(1)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아쿠타가와와 어린시절, 청년시절 그리고 결혼까지를 논문(1)의 여성으로서 상정하고 살펴보았으며, 이 시기에 5인의 잘 알려진 여성에 속하는 여인이 무려 2명으로 즉 첫사랑 야요이와 부인 후미가 이에 속한다. 그 외 여성으로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는 요시무라 치요를 들 수 있겠지만, 결혼 전 성장과정기의 소년과 청년의 여인에 대한 연정이 한 사람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쿠타가와와 잘 알려진 5인의 여성 중 2명이 이 시기에 관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흔히 아쿠타가와와 첫사랑은 요시다 야요이로 알려져 있지만 아쿠타가와에게 의미있는 첫사랑의 여성으로서 요시무라 치요에 대해서는 거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분의 차이로 성취되지 못할 사랑임을 알고 있는 소년 아쿠타가와와 자신보다 지식이 부족했던 그녀에 대해 다른 어떤 여성들에게보다 섬세하게 보호하는 연정을 보여준다. 지적인 것을 좋아했던 아쿠타가와와 또 다른 사랑의 대상과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요시다 야요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다. 파혼 후에도 몇 해를 두고 그녀를 그리워하고 못 잊어하는 모습에서 그의 작품 경향이 바뀌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그 후의 작품은 인간의 에고이즘에 대한 사고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서 야요이와의 사랑과 파탄이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라쇼몬(羅生門)』과 『코(鼻)』가 대표적이다. 이 두 작품이 아쿠타가와가 문단에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첫사랑의 파국이 그에게 가져다 준 영향과 의의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인 쓰카모토 후미는 이미 잘 알려진 5인의 여성 중 한 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쿠타가와가 그녀에게 보낸 연정의 편지문을 통해 결혼까지의 과정을 추리해 보았다. 숙제로 남는 것은 아쿠타가와와 결혼 후 9년 만에 자살을 했다는 점이다. 아이를 세 명이나 두었고 그렇게 열렬한 사랑의 대상을 남겨두고 10년도 지나지 않아 자살을 하고자 한 것은, 술한 편지문에서 보여졌던 후미에 대한 사랑에 그만이 느꼈던 실망 내지는 자신의 지식에 따라오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즉 후미와의 초연의 사랑이 식어버린 이유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대해서는 전술한 후미로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개별적 작품을 통해, 차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 고찰하고자 한다.

나머지 15명의 여인 중에는 알려진 여성이 3명 있으나 그 외 여성은 대부분 자료를 통해 새로이 검토, 추구하려는 여성이 대부분이다. 그의 전 생애에 드리워진 여성들과의 인연과 만남이 작품 속에 어떠한 모티브로 작용, 혹은 관계로 드러나 있는지, 또한 그것이 사실과 어떻게 평행선을 이루는지 논문(2)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최종 결론을 얻고자 한다.

【參考文獻】

- 芥川竜之介(1925) 「藤澤清造君に」評論 『新潮』新潮文庫, p.68
 富田碎花(1927) 「芥川君を憶ぶ」改造, 9月
 芥川 文 (1949) 「二十三年ののちに」(図書 12月)
 恒藤 恭 (1952) 「旧友芥川竜之介」市民文庫版, 27頁
 村松梢風(1956) 「芥川と菊池」「文芸」春秋新社 5月刊行, 62頁
 葛卷義敏(1958) 「芥川のいわゆる初恋」圖書 2月刊行
 _____ (1958) 『芥川をめぐる女性』近代文学鑑賞講座』第11卷, 角川書店
 _____ (1958) 『近代文学鑑賞講座 第11卷 芥川竜之介』角川書店, 6月刊
 芥川竜之介(1968) 「澄堂雜記」『芥川龍之介全集7』角川書房, p.132
 葛卷義敏(1968) 「芥川龍之介未定稿短篇」岩波書店, p.201
 芥川竜之介(1977) 『芥川龍之介全集第3卷』東京: 岩波書店, p.515
 _____ (1977-1978) 『芥川龍之介全集』제10권, 11권, 岩波書店
 _____ (1979) 『筑摩全集類聚 芥川龍之介全集第四卷』筑摩書房, p.13
 _____ (1983) 『日本文学アルバム芥川竜之介』13의 21항, 新潮社
 _____ (1986) 『芥川龍之介全集1』東京: 筑摩書房, p.432
 _____ (1987) 『芥川龍之介全集4,5』東京: 筑摩書房, p.423, p.448, p.512
 _____ (1987) 「昭和文学全集 第1卷」『点鬼簿』第1卷, 小学館 初版
 _____ (1998) 「芥川龍之介全集 第二十三卷」岩波書店
 菊地 弘(1994) 『芥川竜之介—表現と存在』明治書院, p.100
 関口安義(1995) 『芥川龍之介についての評伝』岩波新書
 _____ (1999) 『芥川龍之介とその時代』筑摩書房, p.89
 進士素丸(2019) 『文豪どうかしてる逸話集』角川
<https://news.livedoor.com> (검색 2021.11.05)
<https://pdmagazine.jp/people/akutagawa/> (검색 2021.11.05)
https://www.aozora.gr.jp/cards/000879/files/25_15244.html (검색일: 2021.10.01.)
<https://blog.goo.ne.jp/utakata96/e/> (검색일: 2021.09.12)

논문투고일 : 2021년 12월 31일
 심사개시일 : 2022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2년 02월 09일
 2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2월 22일

< 要 旨 >

아쿠타가와(芥川)의 여성들

- 생애와 작가활동을 중심으로 -

김영희

본 연구는 아쿠타가와(芥川)의 여성들에 대해 고찰 분석한다. 아쿠타가와(芥川)의 여인으로 잘 알려진 여성은 흔히 5명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알려진 5인 외에도 아쿠타가와(芥川)의 생애와 작품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나머지 15인의 여인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 논문(1)(2)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 과정으로 우선(1)로 정리한 것이 본 논문이다. 논문(2)의 과정을 거치면 선행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나름의 독창적이고 유의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논문(1)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아쿠타가와(芥川)의 어린시절과 청년시절 그리고 결혼까지를 논문(1)의 여성으로 살펴보았으며, 흔히 5인의 잘 알려진 여성으로 요시다 야요이와 부인이었던 쓰카모토 후미가 이시기에 등장한다. 그 외 여성으로 주목할 만한 인물은 요시무라 치요이다. 흔히 아쿠타가와(芥川)의 첫사랑은 요시다야요이로 알려져 있지만 아쿠타가와(芥川)에게 의미있는 첫 사랑의 여성으로서 요시무라 치요를 통해, 신분의 차이로 성취되지 못할 사랑임을 알았던 소년 아쿠타가와(芥川)의 연정을 엿볼 수 있다. 지식이 부족했던 그녀를 섬세하게 보살피는 또 다른 아쿠타가와(芥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요시다 야요이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파혼이 되어서도 몇 해를 그녀를 그리워하고 못잊어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에고이즘에 대한 사고를 분명히 하게 되며, 그러한 경향은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쇼몬(羅生門)』과 『코(鼻)』가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부인 쓰카모토 후미로, 아쿠타가와(芥川)가 그녀에게 보낸 많은 연정의 편지문을 통해 결혼까지의 과정을 추리해 보았다. 나머지 15명의 여인 중에는 널리 알려진 여성이 3명이 있으나, 그 외 여성은 대부분 자료를 통해 새로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이 대부분이다. 그의 전 생애에 드러워진 여성들과의 인연과 만남을 통해, 작품 속에 어떠한 모티브로 작용, 혹은 관계로 드러나 있는지, 또한 그것이 사실과 어떻게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지 논문(2)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최종 결론을 얻고자 한다.

Akutagawa's Women

- Centered on Writer's Life and Career -

Kam, Young-Hee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women of Akuda River. The women that were well known as Akutagawa's Lady are often narrowed down to five. However, in addition to the five known women, through the life and works of Akutagawa,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 remaining 15 women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into a thesis (1) and (2) after a detailed review. This thesis is the first (1) of the process. Akutagawa's childhood, youth, and marriage are examined as women in the thesis (1), and five well-known women, Yayoi Yoshida and his wife, Fumi Tsukamoto, appear in this time period. Another notable woman is Chiyo Yoshimura. Through his childhood affection for Yoshimura Chiyo, Akutagawa's realization that love can not be fulfilled due to a difference in status in a love affair can be seen. Another side of Akutagawa can be glimpsed in the way she cares deeply for her lack of knowledge.

Yayoi is a character that cannot be left out. The unfulfilled marriage with her made clear the perception of human egoism. Such a tendency is shown through the works 『Rashomon』 and 『Ko (鼻)』. In that the two works created an opportunity for the Akutagawa family to appear in the paragraph, it can not but be said that the impact and significance of the catastrophe of first love was great. Lastly, it is his wife, Fumi Tsukamoto. As one of the well-known women, this study inferred the process of marriage through the many letters of love that Akutagawa sent to her. What remains to be done is that Akutagawa committed suicide nine years after marriage. The fact that he wanted to commit suicide leaving her and three children raises questions about his passion for love, which has been shown in numerous letters. If love had grown cold, there may have been a lacking on Fumi's part that could not have kept up with his knowledge. For this reason, I intend to review this in the next period through a reasoning where a new character appearing to be Fumi enters. Among the remaining 15 women, there are three well-known women, but most of the other women are women who seek new pursuits through data. Through the ties and encounters with women throughout his life, the kind of motives or relationships revealed in the work, and how they form a parallel with the facts, I seek to obtain a final conclusion with consideration through the second paper.